

# 남북관계 변화와 노조운동의 과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올해로

쉰 다섯 돌을 맞는 광복절은 다른 어떤 해보다 뜻이 깊다. 민족의 숨통을 놀려왔던 남북대립과 냉전질서에 구멍이 뚫리고 화해의 몸짓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은 비활 데 없는 갑동이고 환희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우리들은 뜨거운 여름날의 열기 속에서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의 침답한 모습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롯데호텔, 사회보험공단에 수천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된 이후의 모습이 그것이다. 경찰들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때나 봄직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나아가 경찰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완력을 휘둘렀다. 회사측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에게 주저 없이 보복을 가하였다. 그것은 어떻게 보아도 환멸이다. 이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은 연일 집회 시위를 벌이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삭발을 한 채 서울역 광장에서 열흘이 넘게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남북관계와 노사관계는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화해가 진전된다고 해서 계급계층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되려면 다른 변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은 비지땀을 흘리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회사 쪽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로 곳곳에서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회사측이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노동탄압'의 환멸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

새로 임명된 노동부장관과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농성장에 달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다. 정말로 이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이를 계기로 노사관계 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사태를 봉합하는 것이지 근본해결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동탄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제도상의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되는 한 이러한 우려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갈등

한쪽으로는 남북화해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노동탄압이 번갈아 일어나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남북관계와 노사관계는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화해가 진전된다고 해서 계급계층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되려면 다른 변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북관계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일본·중국·리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세력의 이해가 엇갈려 있다는 점에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속에서도 지금 추세대로 남북화해가 진전된다면 남북에는 각기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특히 남쪽에는 냉전 체제 아래 형성된 비민주적 요소들이 제거되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철수 문제 따위가 그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사회에는 대립과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먼저 통일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들 수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들은 남북화해를 막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발할 것이고 외세를 끌어들여 대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기를 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을 둘러싸고 정부와 외세, 민중과 외세, 민중과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이다. 미국과 일본이 남북관계 변화에서 노리는 목표는 자본주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는데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들 극우세력과 외세의 의도에 한국의 정부와 민중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회의 국가권력과 민중이 어떤 관계에 서느냐에 귀결되는 문제이다.

한편 남한 사회에 일고 있는 계급갈등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그 핵심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마련된 자본 쪽의 새로운 노동자 지배전략이며, 그 수단이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막대한 희생을 당했고 사회는 양극화하였다. 또한 구조조정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계급 계층 사이에, 그리고 각각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 저항력을 약화시켰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방식의 구조조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대중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계급 계층 간에 치열한 대립과 저항이 일어날 것을 예시해준다.

이렇게 보면 남북관계나 한국사회의 변화는 결국 권력·자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조직은 조직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 구조조정 공세에 대항하여 자신의 계급 이익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그 때문에 사회운동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위력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의 지배력과 그 지배에 저항하는 세력 사이의 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리라는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지배세력의 지향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저항세력이 어떤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 운동진영의 상태

우리 사회에는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다. 대중운동조직, 정치운동조직, 시민운동조직, 통일운동조직, 여성운동조직이 그들이다. 이 조직들은 각자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긴 투쟁 끝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량이 상황변화에 마주할 만큼 확대되거나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가 아울러서 가기보다는 각자 계 살길을 찾으면서 각개 약진에 분주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조직은 조직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 구조조정 공세에 대항하여 자신의 계급 이익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그 때문에 사회운동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위력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진보정치운동조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거 참여를 통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세는 아직 미약하고 지도력도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일운동조직은 현

정부 출범 후 급격히 분화된 테다가, 정부가 김정일 정권과의 교류 속에서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시민운동조직들은 지난 총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 위치를 굳혔고, 그 세도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대중동원에는 여전히 취약한 특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에 의해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익집단 사이에 치열한 분쟁이 불으면 무력해짐으로써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운동조직들은 이런 저런 목표를 내세워 끊임없이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연대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가운데는 꽤 규모가 큰 것도 있다. 그러나 연대조직의 활동은 의욕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나름대로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연대투쟁의 위력은 기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직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연대활동에 대한 회의가 일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연대운동의 현상이다.

### 운동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도 진보·개혁세력의 연대가 불필요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되면서 진보·민중세력의 연대와 동맹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연대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이다. 지금의 상황은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정도로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 과거 군부정권 때처럼 독재와 민주라는 확실한 공통의 대치점을 내세워 저항세력을 결집해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급·계층 사이와 그 내부의 분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진보와 개혁을 목표로 하는 조직임이 확인되는 경우, 서로의 처지와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해졌다. 진보에 대한 관념도 크게 달라지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대부분의 계급 계층에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이 크게 힘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게다가 지배권력이 진보·개혁세력을 견인해내기 위해 부단히 작업을 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조직이 무조건 연대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실상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전체 진보·민중세력을 이우를 수 있는 확고한 중심체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사회운동 조직 사이의 연대 방식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는 각 조직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와 현실조건을 인정하는 데서 연대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 곧 진보와 개혁을 목표로 하는 조직임이 확인되는 경우, 서로의 처지와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 연대를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상황변화와 각 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각 조직들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관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연대를 모색하려는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사안별 연대를 어떤 경로로 전체 운동진영의 역량으로 충합해 낼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전망을 내보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진보와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과 세력들이 사안별 연대를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단련하고 공연하는 것의 얼마나 중요화하는 예나  
지경이나 이구의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각 계  
급자종 사이에 대립·갈등·갈胤을 확장해내는 계획체계의 규  
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충원상우 더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체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통상조직이  
필요하다. 각 조직들을 계획·연호하고 대량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정조직인 위원회 같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에서 무엇보다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운동으로서  
서의 노동조합과 그 운동의 결선이다. 최근 2년 남짓 노동조합  
진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비참하게 치열하게 세워졌다.  
이 투쟁은 당초부터 힘겨운 것이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갖는 특성 때문이거나, 서후유류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내  
부의 경쟁과 분열을 일으켰다. 또한 새롭게는 차별에서부터가 아  
니라 국가권력을 대개로 축자분의 수준에서 주선되었다. 이 점  
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막고 기별적연도 및  
한동안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그립한 한 구체역량  
을 제 갖추기 못한 상태에서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노동조합진영은 활시없이 충격기 또는 충격도움을 미아내었  
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진영은 신자유주의 그물구멍에 끌려온 듯  
출동을 축연해 내면서 노동자군의 무정부가 아직 전제화대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이런 무정부를 통해 노동조합진영은 구조조  
합 그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시연시키거나 대생  
을 회소화하는 쪽을 선을 그렸다.

그러나 노동조합진영은 폭행의 가파 충고한 기본체계로, 조례  
법의 화려 강화하는 데에서는 깊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사  
실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적 무정은 충분히 대중적 결집과 관리  
를 할 여유도 없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지도부는 혼신의 일과  
다른세민·후진의 위력을 날조로 기대에 모기 못 기쳤다. 그에  
따르면 혼선이 일어나기도 쉽고 한수도 후반을 리드면서 조작  
과 애가 자주 나타났다. 소속 사이의 질투와 이기증성이 넘  
살아나거나 조장이 협신되어 세도이 편집할 수 있음을 점이

노동조합진영은 설세없이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진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갖는 모순들을 폭로해 내면서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아직 진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였다. 이런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진영은 구조조정 그 자체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자연시키거나 회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라는 징후들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서둘러야 할 노조운동의 혁신

치열한 투쟁을 하고서도 나타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상황은 내일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더욱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을 입박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남북화해의 전전과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의 공세도 그렇거니와 당장 1년 반 후에는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고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끊기게 되어 있다. 전임자문제는 노동조합이 열심히 싸워 저지할 요량이라 하지만 결코 장담할 일은 못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세울 때 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곧 모든 투쟁은 중장기적인 운동전략 위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이념을 확실히 세우는 일, 조직체계를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일, 신규조직을 늘리는 일, 조직운영을 혁신하는 일,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일 등등. 많은 과제들이 투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안팎에서 계속 얘기되었던 것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이나 한국노총의 '21세기 운동기조'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동운동의 진로가 저절로 타개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운동의 새로운 발전은 참신한 이론이 아니라 과거의 시행착

오를 척결하는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된 전략이나 기조가 하루아침에 정착될 수는 없으며 구조조정 공세에 대응하느라 실천이 자연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투쟁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조직과 운동을 익아매고 있는 관성과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내서 어디서든 과감히 끊어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 일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극히 상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낼 때 노동대중들은 조직을 신뢰하고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